

유도형 사이버 폭력의 담화 정당화 전략 연구

— 케이팝 걸그룹 관련 중국 온라인 영상을 중심으로

황숙이* · 박치완**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검토
 - 2) '유도형 사이버 폭력'의 개념
 - 3) 이론 소개
3. 케이팝 걸그룹 관련 영상에 나타난 유도형 사이버 폭력
 - 1) 담화 코딩과 분석 절차 소개
 - 2) 영상을 통해 담화 정당화 전략 분석
 - 3) 유도형 사이버 폭력 담화 확산의 메커니즘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중국 한류 팬덤에서 유행하는 '여단학(女團學)' 담화에 주목하여, 케이팝 걸 그룹 IVE를 대상으로 한 해설형 영상 콘텐츠를 분석 자료로 삼아 유도형 사이버 폭력의 담화 정당화 전략과 그 확산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유도형 사이버 폭력이란 '객관적 분석'이라는 외피를 빌려 담화 전략을 통해 수용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담화 실천을 가리킨다. 본고는 담화 정당화 이론을 분석 틀로 삼아 영상 내 권위화, 도덕적 평가, 합리화, 서사화 전략을 코딩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설자는 비교 편집, 데이터 통계, 전문가적 어조 등을 활용하여 주관적 공격에 객관성의 외피를 부여하고, 외모, 실력, 야심, 도덕의 네 가지 담화 주제를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수료(제1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교신저자)

중심으로 정당화 전략을 증층적으로 배치하였다. 나아가 상호작용 의례 사슬 이론을 활용하여, 정당화된 담화가 댓글 공간에서 감정 공유와 집합적 흥분을 통해 자기 강화적 확산 사슬을 형성하는 과정을 밝혔다.

키워드 : 유도형 사이버 폭력, 담화 정당화, 상호작용 의례 사슬, 케이팝 걸그룹, IVE

1. 서론

인터넷 기술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 전파 구조를 재편하는 동시에 사이버 폭력의 확산에 전례 없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과 음성을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가 극히 용이해지면서,¹⁾ 사이버 폭력의 수단과 양태 역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는 이미 반복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2016년 중국 가수 차오런량(喬任樑)은 장기적인 사이버 폭력과 허위 보도로 인해 우울증이 촉발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며, 소속사는 인터넷 유언비어와 사이버 폭력을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였다.²⁾ 2019년에는 한국의 설리와 구하라가 장기적인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잇따라 세상을 떠났고, 2025년 2월에는 배우 김새론 역시 사이버 폭력을 겪은 후 세상을 떠났다.³⁾ 이러한 비극은 사이버 폭력의 심리적 외상이 신체적 폭력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극단적인 경우 직접적으로 생명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秦健, 「人工智能與人: 從AI的正面與負面影響說開去」, 『數據分析與知識發現』, 제8권 제1호, 2024, 2쪽.

2) 中國網, 「從明星之死看網絡暴力, 各國都如何打擊」, 中國網, http://www.china.org.cn/chinese/2016-09/21/content_39343384.htm, (검색일자: 2026년 3월 25일).

3) 한국일보, 「설리·구하라→김새론까지…악플·악성 보도에 멎는 스타들…비극의 고리 끊으려면」,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813180003551>, (검색일자: 2026년 3월 25일).

그러나 이들이 겪은 사이버 폭력이 모두 직접적 욕설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공격은 ‘평가’나 ‘분석’의 외양을 띠었으며, 참여자들은 자신이 ‘정당한 비평’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기존의 공론장 논의와 학술 연구는 직접적 욕설, 인신공격, 신상 털기 등 식별이 용이한 유형에 집중되어 왔으며⁴⁾, ‘이성적 분석’으로 포장된 은폐적 사이버 폭력이 담화 전략을 통해 수용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정당성을 획득하며 확산되는 기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폭력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폭력은 물리적 상해뿐 아니라 담화와 욕망의 정당화 구조에서도 비롯된다. 소병일은 국가와 사회가 폭력의 근원을 개인의 욕망에 귀속시킴으로써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오히려 폭력의 구조적 본질을 은폐하여 폭력을 ‘정당한’ 명목 하에 일상화·재생산시킨다고 지적하였다.⁵⁾ 인터넷 공간에서도 공격적 담화가 ‘이성적 분석’이나 ‘객관적 평가’로 포장되어 ‘진실 추구’라는 명목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참여자들이 무의식 중에 폭력의 공모자가 되는 유사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동시에, 페미니스트 비판적 담화 분석은 여성 공인 대상 사이버 폭력이 뚜렷한 젠더 권력적 색채를 띠는 점을 밝혀왔다. 조태린은 젠더 폭력 담화가 은폐적 담화 전략을 통해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 합리화’를 실현하고, 언어, 서사, 라벨링 등을 통해 비대칭적 젠더 질서를 공고히 한다고 지적하였다.⁶⁾ 여성 아이돌 대상 유도적 사이버 폭력은 이러한 젠더화된 폭력이 팬덤 문화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형적으로 발현된 사례이다.

나아가, 스포츠 및 아이돌 분야에서 종사자를 겨냥한 폭력적 담화는 이미 안정적인 여론 집단과 담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박해완·박성언은 빅데이터

4) Owen, Trevor, Noble, Wendy, Speed, Fiona C. et al., 「Virtual Violence」, in Owen, Trevor, Noble, Wendy, Speed, Fiona C. (eds.), 『New Perspectives on Cybercrim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p143.

5) 소병일, 「욕망과 폭력—국가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욕망의 담론구조에 관하여」, 『철학연구』, 제47호, 2013, 43-45쪽.

6) 조태린, 「젠더 (폭력)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화 연구—방법론적 검토와 시론적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82호, 2019, 189쪽.

분석을 통해 체육계 폭력 담론이 갈등과 피해, 교육과 문화, 스포츠와 조사, 센터와 윤리의 네 군집으로 구조화되었음을 실증하였다.⁷⁾

중국 케이팝 팬덤에서도 ‘분석’이나 ‘해설’을 명목으로 한 사이버 폭력이 존재하며, 다수 걸그룹 대상 공격적 담화가 영상 편집 해설의 형태로 더우인(抖音), 비리비리(bilibili), 샤오홍슈(小紅書)⁸⁾ 등에서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관련 해시태그의 누적 조회수는 수천만 회를 초과한다.⁹⁾ 이러한 영상들은 표면적으로 ‘객관적 분석’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담화 전략을 통해 수용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아이돌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도적 사이버 폭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담화 전략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며, 정당화된 담화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확산되어 집단적 합의로 고착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의 케이팝 걸그룹을 대상으로 한 유도적 사이버 폭력 영상 콘텐츠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더우인, 비리비리와 샤오홍슈에서 수집한 영상 편집 해설을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다중양식 담화 분석(Multimodal Discourse Analysis)을 핵심 방법으로 채택하되, 테오 반리우웬(Theo van Leeuwen)의 담화 정당화 이론(Discursive Legitimation Theory)을 분석 틀로 삼아 영상 내 정당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코딩 및 분석하고, 나아가 랜들 콜린스(Randall Collins)의 상호작용 의례 사슬(Interaction Ritual Chains) 이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정당화된 담화가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7) 박해원·박성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육계 폭력 담론의 주요 속성 및 군집 구조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제64권 제5호, 2025, 19-20쪽.

8) 더우인(抖音):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셜 플랫폼. 비리비리(Bilibili): 장편 동영상 및 전문 콘텐츠 중심의 커뮤니티 플랫폼. 샤오홍슈(小紅書): 일상과 체험 공유형 이미지, 짧은 영상 콘텐츠 중심 플랫폼.

9) Zhai, Hui and Wang, Wen Y., “Fans’ Practice of Repor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7, 2023, pp. 1916-1920.

2.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언어폭력은 사이버 폭력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모리타 요시아(Morita Yashia)는 언어폭력을 상대방의 신체적 특징, 약점, 출신 배경, 행동이나 성격상의 결함을 이용하여 별명을 붙이거나 조롱·비꼬기 등을 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정신적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¹⁰⁾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이 개념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었다. Owen 등은 사이버 폭력을 네티즌이 인터넷 공간에서 상해적·모욕적·선동적 언어, 이미지, 영상 등의 수단을 통해 행하는 폭력 행위로 규정하였다.¹¹⁾ Ging 등은 나아가 인터넷 공간의 공격적 담화가 익명성, 반복성, 집단성을 통해 심리적·사회적 외상을 축적하며 일상적 담화 관행으로 고착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¹²⁾ 이는 사이버 폭력이 우발적인 개인 행위가 아니라 구조화·일상화되는 담화 실천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반에서 학자들은 사이버 폭력의 유형과 특성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린단과 황자신(林丹·黃嘉欣)은 전과학적 관점에서 사이버 폭력을 성격에 따라 사이버 도크싱(cyber doxxing, 人肉搜索)과 유언비어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¹³⁾ 조계원은 사이버 폭력의 세 가지 구조적 특징으로 비대면성과 무경계성, 익명성과 집단성, 지속성과 통제 불가능성을 귀납하였다.¹⁴⁾ 차오예(曹葉)는 이를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모욕·욕설, 유언비어 유포, 사생활 침해 등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사망¹⁵⁾’과 같

10) Morita Yashia, 『教室の危い』, 東京: 金子書房, 1996.

11) Owen et al., 앞의 논문, 136쪽.

12) Ging, Debbie, and Eugenia Siapera, “Special Issue on Online Misogyny,” *Feminist Media Studies*, Vol. 18, No. 4, 2018, p.520.

13) 林丹·黃嘉欣, 「傳播學視角下網絡暴力現象研究」, 『新聞研究導刊』, 第13권 제22호, 2022, 124쪽.

14) 조계원, 「디지털 혐오 시대의 사이버 폭력」, 『시민정치연구』, 제8호, 2024, 71-72쪽.

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¹⁶⁾ 셰레이(謝磊)는 웨이보(微博) 상에서 네티즌이 유명인에게 행하는 언어폭력을 분석하며, 소셜 미디어가 네티즌과 스타에게 평등한 전과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러한 평등한 ‘담화권’이 네티즌이 스타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⁷⁾

방향옥은 사이버 폭력을 정의하면서 ‘폭력 언어’와 ‘언어 폭력’을 구별하였다. 전자는 언어 현상 자체의 공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후자는 가해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이 구분은 본 연구의 위치 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⁸⁾ 본고가 관심을 두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가’라는 행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격적 담화 자체가 어떻게 특정 전략을 통해 정당화를 획득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전과되는가, 즉 ‘폭력 언어’라는 언어 현상 차원의 고찰이다.

그러나 위의 유형 분류는 특성 귀납이든, 기존 사이버 폭력 연구에는 공통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대다수의 연구가 현시적 사이버 폭력, 즉 가해자가 명백히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상해하는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성적 분석’의 형태로 포장된 은폐적 사이버 폭력의 담화 전략이 어떻게 수용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합법성을 획득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 고찰이 여전히 부족하다. 본고가 주목하는 유도형 사이버 폭력은 바로 이 간과되어 온 유형에 해당한다. 이는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객관적 분석’이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공격적 담화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식별과 저항이 더욱 어렵다.

15) ‘사회적 사망(社會性死亡)’이란 신체적으로 생존하고 있으나 네티즌의 집단적 비판·여론 재판으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회적 관계·직업 활동·일상 생활이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조동매, 「최근 중국의 ‘사회적 사망’ 현상에 관한 분석—霍尊 사건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62호, 2022, 261쪽 참조.

16) 曹葉, 「“飯圈”網絡暴力行爲的產生機制與治理對策」, 『西南科技大學學報』, 第41卷 第6號, 2024, 104쪽.

17) 謝磊, 「社交媒體情境下明星遭遇網絡暴力成因分析」, 『傳播與版權』, 第6號, 2018, 118쪽.

18) 方向玉, 「중국 사이버 폭력 언어의 특징과 표현 양상」, 『용봉인문논총』, 제58호, 2021, 170쪽.

이러한 은폐적 사이버 폭력은 여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젠더 권력의 구조적 작용과 밀접히 관련된다. 심진경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체제에서 재생산되는 구조적 산물이라고 지적하였다.¹⁹⁾ 아이돌 산업에서 여성 아이들의 신체, 외모, 행동 거지는 끊임없이 심사와 평가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실력 분석’이나 ‘무대 퍼포먼스 평가’를 명목으로 한 담화는 자연스럽게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비평가들은 젠더화된 심사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포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격은 더욱 은폐적이 되고 폭력으로 지목되기 어려워진다.

팬 커뮤니티의 구조적 특성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강화한다. 류친(劉勤)은 팬덤 내부의 고도의 집단 동일성과 배타성이 정보의 고치(信息繭房) 효과와 겹쳐 집단 극단화를 심화시키고 이견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압축한다고 지적하였다.²⁰⁾ 자이 등은 팬들이 체계적인 콘텐츠 생산·편집 전파·화제 운영을 통해 담화권을 쟁탈하는 조직화된 행동 양식을 밝혔다.²¹⁾ 그러나 기존 팬덤 문화 연구는 주로 집단 행위의 조직화 특성에 주목해 왔으며, 이러한 조직화된 실천 속에서 ‘분석’이나 ‘해설’을 명목으로 한 공격적 담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2) ‘유도형 사이버 폭력’의 개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고는 ‘유도형 사이버 폭력 담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 행위자가 ‘객관적 분석’이나 ‘이성적 평가’ 등의 담화 프레임을 의피로 삼아, 치밀하게 설계된 담화적 전략을 활용하여 수용자가 특정 방향으로 판단하도록 이끌고, 특정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19) 심진경, 「여성 폭력의 젠더정치학」, 『젠더와 문화』, 제4권 제2호, 2011, 128쪽.

20) 劉勤, 「“飯圈”青年的思想行爲特征与教育引導策略研究」, 西南科技大學 석사학위논문, 2024, 17-18쪽.

21) Zhai & Wang, 앞의 논문, 2023.

인격 공격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담화 실천을 가리킨다. 그 핵심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형식상의 합리성으로, ‘분석’, ‘해설’ 등의 인지적 프레임 채택하여 공격 행위에 논의와 평가의 형식을 부여한다. 둘째, 수단상의 증거화로, 영상 편집, 비교 화면, 데이터 통계 등을 통해 주관적 판단에 객관성의 외피를 씌운다. 셋째, 효과상의 유도성으로, 수용자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고한 끝에 결론에 도달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콘텐츠 제작자가 미리 설정한 방향을 따라간 것이다.

본고의 분석 사례는 케이팝 걸그룹 IVE를 심판하는 것을 주제로 한 해설 영상이다. 영상은 시청각 복합 매체로서 그 자체가 ‘언어’는 아니지만, 내레이션, 자막, 화면 처리 기법(슬로 모션, 확대, 비교 편집 등), 배경 음악과 효과음 등의 요소가 모두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²²⁾ 해설형 영상이란 창작자가 원본 영상 소재를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내레이션과 자막, 배경 음악을 결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영상 형식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숏폼 영상 플랫폼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방대한 해설 콘텐츠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더우인, 비리비리, 샤오홍슈 등의 플랫폼에서 영화·드라마 해설, 소설 해독, 연예인 관련 뉴스에 이르기까지 각종 해설형 영상은 이용자의 일상적 콘텐츠 소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이 강력한 유도력을 지니는 이유는, 해설자가 통상 냉정하고 객관적인 어조로 서술을 전개하면서도, 소재의 취사선택, 서사의 배치, 정서적 배경 음악이 수용자를 무의식적으로 미리 설정된 판단의 틀로 이끌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하에서 동일 유형의 콘텐츠가 유사한 관심사를 지닌 이용자 집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해설의 전파 효과를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전파 과정에서 영상 해설자는 기존 소재를 재가공하고 자극적 해석을 덧붙여 논란을 조성하며,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특정 해석이 점차 ‘보편적 견해’로 수용되게 한다.²³⁾

22) 朱永生, 「多模態話語分析的理論基礎與研究方法」, 『外語學刊』, 제5호, 2007, 82-84쪽, 참조.

23) 龔瑤瑤, 「網絡暴力語境下‘營銷’行為的界定」, 『中國價格監管與反壟斷』, 제10호, 2025.

본고는 분석 대상 영상에 대해 다중양식 전사방법을 적용하여, 시청각 요소를 시간 지점, 화면 내용, 화면 처리 기법, 내레이션과 자막, 음악과 효과음 등의 분석 단위로 단락별로 텍스트화하여 분석할 것이다.

3) 이론 소개

테오 반 리우웬(Theo van Leeuwen)은 담화 정당화 이론(Discursive Legitimation Theory)에서 권위화(authorization), 도덕적 평가(moral evaluation), 합리화(rationalization), 서사화(mythopoesis)이 네 가지 핵심 정당화 전략을 제시하였다.²⁴⁾

권위화란 권위에 호소함으로써 정당화를 실현하는 전략이다. 그 핵심 논리

104쪽.

- 24) 반 리우웬의 정당화 연구는 1995년 담화 내 사회적 행위 재현 방식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한다. 해당 논문에서 정당화는 “Why”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의되었다——“Legitimation, finally, adds the answer, sometimes explicitly, sometimes more obliquely, to the question ‘Why’” (Theo van Leeuwen, “Representing Social Action,” *Discourse & Society*, Vol. 6, No. 1, 1995, p. 93).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정당화는 독립된 연구 이론으로 구축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행위 재현 프레임워크 내에서 반응(reactions), 목적(purposes)과 병렬적인 담화 요소로 제시되었다. 2007년, 반 리우웬은 정당화를 해당 프레임워크에서 분리하여 의무교육 제도 텍스트를 코퍼스로 삼아 권위화(authorization), 도덕적 평가(moral evaluation), 합리화(rationalization), 서사화(mythopoesis) 네 가지 전략의 완전한 분류 체계와 언어적 실현 방식을 구축하였으며, 이 네 가지 전략이 “can occur separately or in combination(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발생할 수 있다)”임을 명시하였다 (Theo van Leeuwen, “Legitimation in Discourse and Communication,” *Discourse & Communication*, Vol. 1, No. 1, 2007, p. 92). 2008년, 반 리우웬은 저서 『Discourse and Practice: New Tools for Critical Discourse Analysis(話語與實踐：批判話語分析新方法)』에서 이 이론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네 가지 정당화 전략을 보다 완결된 비판적 담화 분석 방법론 체계 속에 편입시켰다 (Theo van Leeuwen, *Discourse and Practice: New Tools for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본고에서 채택한 정당화 이론은 2007년 논문 및 2008년 저서를 주요 근거로 하며, 2008년 저서는 상하이외국어교육출판사(上海外語教育出版社)에서 2018년에 도입 및 출판한 영문 원서를 인용하였다.

는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특정 권위의 원천, 즉 전통, 관례, 법률 또는 제도적 권위를 부여받은 인물을 향한다는 데 있다. 도덕적 평가는 가치 체계에 호소함으로써 정당화를 실현하는 전략이다. 그 담화적 특징은 은폐성에 있으며, 관련 가치 판단은 명시화되거나 논쟁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지 않고,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등의 형용사를 통해 암시된다.²⁵⁾

합리화는 제도화된 사회적 행위의 목표와 용도, 그리고 그것에 인지적 유효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지식에 호소함으로써 정당화를 실현하는 전략이다. 반 리우웬은 도구적 합리화와 이론적 합리화를 구분하였다. 전자는 행위의 목표, 용도, 효과를 통해 정당화를 실현하며, 후자는 ‘사물이 본래 그러하다’는 지식을 구축함으로써 정당화를 실현한다.²⁶⁾ 서사화는 서사를 통해 정당화를 전달하는 전략이다. 도덕적 이야기(moral tales)에서 주인공은 합법적인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거나 합법적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보상을 받으며, 경고적 이야기(cautionary tales)에서 주인공은 규범을 이탈함으로써 불행한 결말을 맞는다.²⁷⁾

이 틀은 본래 의무교육 및 이민 관리 담화의 분석에 사용되었으나, 그 논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격적 담화가 스스로 합법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반 리우웬 자신도 정당화가 언어뿐 아니라 시각적, 심지어 음악적 수단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²⁸⁾, 이는 이 틀이 본고에서 다루는 영상 편집 해설이라는 시청각 복합 매체의 다중양식 분석에 적합함을 시사한다.

정당화 전략의 분석에 더하여, 본고는 랜들 콜린스(Randall Collins)의 상호작용 의례 사슬(Interaction Ritual Chains) 이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정당화된 담화가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설명한다. 콜린스는 집단적 상호작용이 고립된 사건의 집합이 아니라, 반복과 축적을 통해 감정을 강화하

25) Theo van Leeuwen, 『話語與實踐: 批判話語分析新方法』,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18, 106-109쪽.

26) Theo van Leeuwen, 위의 책, 2018, 113-116쪽.

27) Theo van Leeuwen, 앞의 책, 2018, 117-119쪽.

28) Theo van Leeuwen, 앞의 책, 2018, 119-121쪽.

고 집단적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하였다. 즉 집단의 집결, 외부인의 배제, 관심 초점의 공유, 감정의 공유가 그것이다. 이 네 요소가 동시에 충족될 때 상호작용은 집합적 흥분(collective effervescence)을 산출하고, 참여자는 감정 에너지(emotional energy)를 획득하며, 이 에너지는 다시 다음 상호작용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어 자기 강화적 사슬을 형성한다.²⁹⁾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유도형 사이버 폭력 영상을 분석한다.

3. 케이팝 걸그룹 관련 영상에 나타난 유도형 사이버 폭력

1) 담화 코딩과 분석 절차 소개

본고는 분석 대상 자료에 대해 이중 코딩 구조를 채택하였다. 제1차원은 담화 주제 코딩이며, 제2차원은 정당화 전략 코딩이다. 담화 주제 코딩은 ‘사이버 폭력의 내용이 무엇을 겨냥하는가’에 답하고, 정당화 전략 코딩은 ‘사이버 폭력이 어떻게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되는가’에 답한다.

구체적인 코딩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자료를 1차 통독하여 각 분석 단위 (시간 지점 기준으로 구분) 의 담화 주제를 표기한다. 이어서 담화 주제 코딩을 바탕으로 각 분석 단위에 나타난 정당화 전략의 유형을 하나씩 표기하고 그 구체적 표현 형태를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코딩 결과를 영상 분석표에 취합한다.

관련 내용에 대한 반복적 독해와 귀납을 거쳐, 본고는 담화 주제 코딩을 네 가지 범주로 확정하였다 (아래 [표 1] 참조) . 외모, 실력, 야심, 도덕이 그것

29) Collins, Randall, 진수미 역, 『사회적 삶의 에너지: 상호작용 의례의 사슬』, 한울, 2009, 21-32쪽.

이다.

〈표 1〉 유도형 사이버 폭력 담화의 주제 코딩

주제 범주	정의	대표적 담화 특징
외모	외적 이미지(용모, 체형, 메이크업, 스타일링 등)를 빌미로 대상을 공격하는 담화	‘외모’, ‘몸매’, ‘성형’, ‘꾸밈’, ‘비주얼’ 등 관련된 단어 사용
실력	직업적 역량(가창, 댄스, 무대 장악력, 예능감 등)을 빌미로 대상을 공격하는 담화	‘실력’, ‘가창력’, ‘박치’, ‘수정음’, ‘립싱크’ 등이 능력 부정의 단어 사용
야심	자원 배분(카메라, 포지션, 솔로 기회 등)을 둘러싼 직업적 행위를 ‘속셈’이나 ‘꿀꺽’으로 프레임하는 담화	‘카메라’, ‘포지션’, ‘자원’, ‘솔로’, ‘속셈’, ‘센터’ 등이 동기 의심
도덕	인성, 태도, 멤버 간 관계, 팬 대응 등을 빌미로 대상의 도덕적 품성을 부정하는 담화	‘인성’, ‘태도’, ‘불화’, ‘허세’, ‘이중적’, ‘냉담’ 등이 도덕적 비난

정당화 전략 코딩(아래 [표 2] 참조)은 반 리우웬이 제시한 네 가지 전략을 출발점으로 하되, 각 전략의 하위 유형과 대표적 표현 양상을 유도형 사이버 폭력 담화 분석에 맞게 조정하였다.

<표 2> 유도형 사이버 폭력 담화의 정당화 전략 코딩

정당화 전략	구체적 내용
권위화	①자기 권위 부여형: '장기 관찰자', '데뷔 초부터 팔로우해 온 사람'을 자처하며 개인 권위를 구축 ②인용형: '소식통', '업계 관계자' 등 익명의 권위를 원용 ③대중 동조형: '많은 팬이 진작부터 느꼈다'며 집단 공감대에 호소
도덕적 평가	①인격 폄하: '태도 불량', '속셈이 있다' 등 도덕적 판단이 내포된 수식어로 인격을 공격 ②규범 이탈 프레임: 개인 행위를 '팀워크' 등 암묵적 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틀짓기 ③대조적 도덕화: '모범적 사례'와의 대비를 통해 공격 대상의 도덕적 결함을 암시
합리화	①증거 구성형: 선택적 화면 캡처, 수치 통계, 시계열 배치 등으로 '객관적 근거'의 외양을 제조 ②방법론 모사형: '분석', '정리', '통계' 등 학술적이고 보도적 어휘를 차용하여 연구의 형식을 모방 ③인과 추론형: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전환 (예: '포지션이 뒤쪽 → 멤버 간 불화')
서사화	①피해자 서사: '억압받는 멤버', '기만당하는 팬'이라는 이야기 구조를 구축 ②폭로자 서사: 콘텐츠 제작자를 '감히 진실을 말하는 자'로, 그 반대편을 '아무도 입에 담지 못하는 진실'로 위치시킴 ③쇠락 서사: '데뷔 이후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시간축 이야기를 구축

2) 영상을 통해 담화 정당화 전략 분석

본 절에서 분석하는 영상은 “IVE vs Gidle: ‘여단학’ 대결! 누가 한류에서 가장 화제가 많은 걸그룹인가?”³⁰⁾라는 제목으로, 총 길이 7분 58초이다. 해

30) 원제는 “IVE vs Gidle: 女團學大比拼! 誰是韓娛最精彩女團?”이다. ‘最精彩’는 ‘가장 뛰어난’을 의미하지만, 영상 전체의 논조를 고려하면 칭찬이 아닌 ‘가장 논란이 많은’이라는 반어적 뉘앙스로 사용되었다. 이에 본도에서는 ‘가장 화제가 많은’으로 옮겼다. 중국 인터넷 환경에서 ‘〇학’은 특정 인물의 언행과 관련된 논쟁을 학문 형식으로 패러디한 네트워크 밈 현상을 의미한다. (陳愛梅·張璐璐·舒樂, 「戲謔、抵抗與反思: 青年“X學”迷因的符號互動與身份建構研究」, 『中國青年研究』, 제3호, 2026, 15쪽, 참조.) 본고에서의 ‘여단학(女團學)’은 걸그룹을 대상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형성된 밈 현상을 지칭한다. 이하 내용에 언급된 ‘푸학(芙學)’은 IVE의 중국어 발음의 해음인 ‘푸(美)’에서 유래한 용어로, 본문에서 ‘푸학’은 IVE와 관련된 현상을 의미한다.

설자가 직접 출연하여 설명하는 형식을 중심으로, IVE, (G)I-DLE, BLACKPINK, ITZY, SEVENTEEN, 2NE1 등 다수 케이팝 그룹의 무대 영상, 예능 클립, 단체 사진이 삽입되어 있다. 본고는 해당 영상을 8개 클립으로 나누었으며, 각 클립의 시청각 요소를 아래 [표 3-1], [표 3-2], [표 3-3]과 [표 3-4]에 정리하였다.

〈표 3-1〉 IVE에 관련 영상 분석표(클립 1~3)

클립 번호/ 시간 구간	화면 내용	화면 처리 기법	내레이션/자막/배경 음악 (음향 효과)
클립1 0:00-0:12	해설자 본인 출연 IVE와 Gidle의 단체 사진 수 장 삽입	IVE와 Gidle의 이미지 전환	내레이션: “오늘은 IVE랑 Gidle의 ‘여단학(女團學)’ 얘기를 해볼게요. 이 미녀들 팀 내 관계가 얼마나 재밌는지, 여단학 뒤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뭔지.” 자막: 내용은 내레이션과 동일, ‘팀 내 관계’, ‘아무도 모르는 비밀’ 굵은 글씨 강조 배경 음악: 박수 소리
클립2 0:12-1:46	Gidle 무대&예능 클립 SEVENTEEN 무대 클립, 2NE1 무대 클립, 해설자 본인	Gidle, SEVENTEEN, 2NE1 영상 클립 교차 전환	내레이션: “제가 여단학을 두 가지로 나눠 봤는데, 하나는 권력 내재형 여단학이에요. 딱 Gidle이 그렇죠. 리더 전소연이 히트곡을 만드는 핵심 인원이다 보니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고, 사내에서 발언권도 정말 크거든요. 케이팝 좀 본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팀 안에 이렇게 파워 있는 멤버가 있으면 나머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SEVENTEEN 우지도 마찬가지고요...(중략)Gidle 여단학은 부딪히면서 정 드는 스타일이에요.” 자막: 내용은 내레이션과 동일, ‘여단학’, ‘권력 내재’, ‘발언권’, ‘부딪히면서 정 드는’ 굵은 글씨 강조 배경 음악: 경쾌한 피아노곡과 무대 클립 원음
클립3 1:46-2:23	블랙핑크 무대 영상, 단체 사진과 해설자 본인	블랙핑크 무대 영상, 단체 사진과 해설자 화면 교차 전환	내레이션: “...블랙핑크 멤버들은 각자 개성 강한 인물들이고, 그들 사이에는 경쟁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건 협력이에요.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함께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이 일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이죠. 아시아 여성 시장을 키우는 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에요.” 자막: 내용은 내레이션과 동일, “협력” “아시아계 여성” “제로섬 게임” 등의 단어가 굵고 밝게 강조 배경음악: 경쾌한 피아노곡과 무대 영상 원음

<표 3-2> IVE에 관련 영상 분석표(클립 4-5)

<p>클립 4 2:23 -3:20</p>	<p>있지(ITZY) 무대 영상과 영상 해설자 본인</p>	<p>있지(ITZY) 무대 영상과 영상 해설자 본인의 화면이 번갈아 전환</p>	<p>내레이션: “있지는 계속해서 함께 연습실에 붙어 다녀요. 주변에서 ‘걸그룹이 이렇게 강한 춤을 출 필요가 있나?’ 라고들 하는데, 신류진은 ‘누가 걸그룹이 강한 춤 못 춘다고 했어?’ 라고 반문하죠. 이렇게 내부에 권력이 존재하는 팀에게는 분명히 전우애가 있을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성장시켜주는...(중략),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는 대역주인공들이 이렇게 숨겨진 소심한 마음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에게 닭들끼리 서로 쪼아대는 서사를 만들지 마세요.” 자막: 내용은 내레이션과 동일, “누가 걸그룹이 강한 춤 못 춘다고 했어?” “전우애” “서로를 성장시켜주다” 등의 단어가 굵고 밝게 강조 배경음악: 경쾌한 피아노곡과 무대 영상 원음</p>
<p>클립 5 3:20 -5:17</p>	<p>영상 해설자 본인 출연, IVE를 언급할 때 눈을 위쪽으로 올려보는 모습</p>	<p>영상 해설자 출연 화면과 IVE 무대 영상·예능 영상이 번갈아 전환</p>	<p>내레이션: “다음은 두 번째 걸그룹 IVE인데, 이 팀은 명백히 권력 외재형이에요. 우선 멤버들의 실력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어요. 누가 주 담당인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실력이 부족하면 서로를 성장시켜줄 수도 없죠...(중략) 서로 도와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특성이 이 팀(IVE)에는 없어요. 이 팀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그냥 회사에서 내준 곡과 멤버들의 얼굴, 아 그리고 마케팅이죠...(중략) 멤버들의 스타일이 전부 비슷하다 보니 ‘부학(美學)’이 탄생한 거예요. 저는 ‘부학’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IVE와 관련된 ‘부학’ 콘텐츠가 정말 많거든요. 전부 미녀인 상황에서 누가 센터에 설 수 있는지, 누가 더 화려한 액세서리를 낄 수 있는지, 누가 더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는지 가지고 경쟁하죠. 멤버들은 센터에 설 때도 눈치를 보는 이른바 ‘IVE 센터 경쟁 기교’ 같은 행동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오직 하나의 핵심, 바로 실권(失權)이에요.” 자막: 내용은 내레이션과 동일, “권력 외재” “마케팅” “부학” “IVE 센터 경쟁 기교” “실권” 등의 단어가 굵고 밝게 강조 배경음악: 리듬감 있는 경쾌한 피아노곡</p>

〈표 3-3〉 IVE에 관한 영상 분석표(클립 6-8)

클립 6 5:17 -5:54 4	영상 해설자 본인 출연, 나레이션과 동시에 다른 팀 응원봉을 들고 흔드는 모습 / 있지 멤버가 소박한 차림으로 연습실에서 춤추는 영상	다른 팀 멤버를 언급할 때 있지 등 다른 팀의 무대 영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나레이션 시점에는 영상 해설자 본인 화면으로 복귀	내레이션: “다른 팀 멤버들은 다 ‘나는 프로듀서라서 무대 뒤에서 해도 돼, 다른 멤버들이 더 멋있으니 그들이 무대에 나와 보여주자’ 라고들 하잖아요. 이런 멤버들이 과연 메이크업으로 동료들을 누르려고 할 리가 있을까요? 실력 있는 아이들은 얼굴 안 봐도 돼요, 춤만 보면 바로 반하잖아요. 동료들을 눌러서 내 마음과 지갑을 사로잡을 필요가 전혀 없죠.” 자막: 내용은 나레이션과 동일, “메이크업” “압박” 등의 단어가 굵고 밝게 강조 배경음악: 리듬감 있는 경쾌한 피아노곡
클립 7 5:54 -7:34 4	영상 해설자 본인	영상 해설자 본인 단독 나레이션 화면	내레이션: “하지만 IVE처럼 실력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얼굴만 보는 팀에서는 평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로 센터에 설 권력을 추구하죠...(중략) 사실 저는 미녀를 정말 좋아하는데, 미녀가 실권하는 건 싫어요. 한 팀이 그냥 미모로 경쟁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자아도취밖에 없을 때, 이 팀이 어떤 결속력을 가질 수 있고 관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워요. 다들 아이들을 볼 때 그들을 본받으려 하지 않잖아요...(중략) 하지만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방물이 정말 높아요...(중략) 우리가 여자 아이들을 상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도 상품화된 건 아닐까요? 우리가 ‘여단학’을 가지고 놀 때, 여성들 사이의 관계 방식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자막: 내용은 나레이션과 동일, “실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냥 얼굴만 본다” “실권” “자아도취” “모방물이 높다” “상품화” 등의 단어가 굵고 밝게 강조 배경음악: 경쾌하고 익살스러운 피아노곡
클립 8 7:34 -7:58 8	영상 해설자 본인	영상 해설자 본인 단독 나레이션 화면	내레이션: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는 미모의 매력을 알아보시는 동시에 권력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 진정한 여왕이 되시길...(아래에 계속)

<표 3-4> IVE에 관련 영상 분석표(클립 8)

/	/	/	(위에 계속)...어쨌든 여러분에게, 저는 언제나 최선의 소망을 보내요. 좋아요·공유·저장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내용은 나레이션과 동일, “어쨌든 여러분에게, 저는 언제나 최선의 소망을 보내요” 부분이 굵고 밝게 강조 배경음악: 리듬감 있는 경쾌한 피아노곡
---	---	---	---

(1) ‘여단학’ 프레임의 구축

영상은 해설자가 직접 출연하여 “오늘은 IVE랑 (GI-DLE...(중략) 미너들의 팀 내 관계가 얼마나 재밌는지... 숨겨진 비밀이 대체 뭐지?”라는 오프닝으로 시작된다. 불과 12초 만에 두 가지 정당화 전략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우선은 합리화이다. ‘여단학’이라는 유사 학술적 명칭은 영상 전체 정당화의 핵심으로, 아이돌 대인 관계에 대한 주관적 추측을 연구 가능한 ‘학문’으로 재포장한다. 이는 반 리우웬이 말하는 방법론 모사형 합리화, 즉 학술적 혹은 보도적 어휘를 차용하여 연구의 형식을 모방하는 방식에 해당한다.³¹⁾ 시청자가 ‘여단학’이라는 개념을 수용하는 순간, 이후의 모든 관계 분석은 ‘가십’이나 ‘공격’이 아닌 ‘연구’로 전환된다. 자막은 ‘여단학’, ‘팀 내 관계’, ‘아무도 모르는’ 등을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교양 프로그램의 자막 스타일을 모방하고 ‘전문 키워드’의 느낌을 시각적으로 강화한다.

다음은 권위화이다. 해설자는 직접 출연을 통해 ‘분석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이는 자기 권위 부여에 해당한다.³²⁾ 전문 자격이 아닌 ‘직접 얼굴을

31) Theo van Leeuwen, 앞의 책, 2018, 115-116쪽.

32) 해당 영상의 해설자는 “預言家A〇〇”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다(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전체 닉네임은 생략한다). 세 플랫폼 팔로워 수는 2026년 3월 26일 기준으로 약 76만 명에 달하며, 각 플랫폼 개인 소개란에 베이징 소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명문대 졸업, 현직 대형 제작사 예능 PD라는 이력을 기재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을 네

드러내고 설명한다'는 행위 자체로 '이 주제를 논할 자격이 있다'는 암시를 생성하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은 정보 비대칭을 설정하여 시청자를 ‘모르는 쪽’에, 자신을 내막을 켜 ‘아는 쪽’에 위치시킨다. 박수 효과음이 더해져 ‘방송 시작’의 의례감을 조성한다.

클럽2에서 해설자는 핵심 분류 틀을 제시한다: “제가 ‘여단학’을 두 가지로 나눠 봤는데, 하나는 권력 내재형 여단학이에요.” (G)I-DLE을 사례로 들며 “리더 전소연이 히트곡을 찍어내는 사람이라 회사 회의에도 끌려가고, 사내에서 발언권이 크다”고 설명하고, SEVENTEEN의 우지를 교차 증거로 인용한다. 여기서 합리화는 유사 분류 체계의 구축으로 격상된다. 걸그룹 내부 관계를 ‘권력 내재형’과 ‘전우애형’으로 양분하는데, 걸보기에는 중립적 병렬이지만 가치 판단은 이미 내장되어 있다. ‘전우애’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반면, ‘권력 내재’는 지배와 불평등을 환기시키며 ‘권력 집중 = 공평하지 못한 위계’라는 도덕적 전제를 깔고 있다. 이는 도덕적 평가 전략 중 규범 이탈 프레임에 해당한다.

‘히트곡 제조기’, ‘발언권이 크다’ 본래 직업적 역량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지만, ‘권력 내재’라는 틀에 배치되는 순간 권력 독점의 증거로 재해석된다. “케이팝 좀 본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는 대중 동조형 권위에 호소하여 ‘이건 팬덤 내 상식이고 모르면 문외한’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팀에 이런 파워 있는 멤버가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된다”는 서술문 형태로 객관적 법칙처럼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리더십’을 ‘타인을 굴복시키는 힘’으로 뒤바꾼 인과 추론형 합리화이다. 시각적으로는 (G)I-DLE, SEVENTEEN 등 여러 그룹의 무대와 예능 클럽이 수 초 단위로 빠르게 교차되면서 ‘풍부한 사례의 뒷받침’이라는 인상을 만들어낸다. 파편적 소재로 체계적 결론을 만들어내는 귀납법은 증거 구성형 합리화가 영상 매체에서 작동하는 전형적 방식이

티즌의 ‘연예계 인맥’으로 자처한다. 이러한 학력과 경력, 그리고 자기 라벨링은 해설자의 발언이 일반 팬의 감상이 아닌 업계 내부자의 전문적 견해로 수용되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다. 자막은 ‘여단학’, ‘권력 내재’등을 계속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학술 맥락’의 ‘전문적 느낌’을 유지한다.

클립3과 클립4에서 해설자는 각각 BLACKPINK와 ITZY를 사례로 드는데, 실제 기능은 긍정적 참조물의 구축이다. BLACKPINK를 ‘협력형’으로, ITZY를 ‘전우형’으로 자리매김하여 이후 IVE를 부정적 유형에 배치하기 위한 대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BLACKPINK를 다룰 때 해설자는 ‘시장’, ‘원원’, ‘아시아 여성’ 등 전문적 어휘를 동원하여 주관적 판단에 합리적 색채를 입힌다. 그러나 어떤 걸그룹이 ‘경쟁’이고 어떤 걸그룹이 ‘협력’인지는 전적으로 해설자의 해석에 달려 있으며, 이 해석 권한 자체가 자기 권위 부여의 발현이다.

ITZY를 언급할 때는 권위화가 한층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다들 그러잖아요”는 대중 동조형, “신류진이 말했다”는 인용형으로 각각 권위의 원천을 달리하여 원용한다. “즐겁 합속하면서 연습한다”는 ‘합속 훈련 → 실력 → 전우애’라는 인과 사슬을 구축하는 인과 추론형 합리화이다. ‘하늘을 나는 때’와 ‘약한 것들끼리 쪼아대기’라는 은유 쌍은 ITZY를 높이는 동시에 ‘약한 것들끼리 쪼아대는’ 걸그룹의 존재를 암시한다. “꿈꿨어”는 부정문(“있을 리가”)으로 등장하지만, 오히려 이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시청자에게 “그러면 누가 꿈꿨어 있는 거지?”라는 연상을 심어, 이후 IVE 공격의 복선이 된다. 이처럼 ‘A를 띄워서 B를 깎는’ 간접 공격이 유도형 사이버 폭력의 정교함이다.

(2) IVE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전개

영상이 약 1/3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해설자는 IVE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고, 이를 권력 외재형으로 분류한다. 해설자는 자신의 주관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객관적인 법칙을 밝히는 듯한 어조로 IVE의 멤버 구성, 팀 운영, 무대 퍼포먼스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클립5에서 해설자는 IVE의 성공을 전적으로 소속사의 마케팅 기획과 외모

우위에 귀속시키며, 멤버들의 노력이나 전문 역량, 팀워크는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연습, 무대 경험, 음악적 이해 등에서의 축적을 무시하고 IVE를 ‘자주성이 없이 회사의 안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룹으로 규정한다. “자기 판단이 없다”를 반복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권력 외재’ 논리를 강화한다. 이는 인과 추론형 합리화에 해당한다.

동시에 해설자는 IVE의 무대 스타일링, 의상, 메이크업 등 통상적인 시각적 연출을 소속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정교한 마케팅’으로 읽어내고, 이를 멤버의 ‘자주성 상실’과 연결시킨다. 멤버들이 카메라 앞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나 스타일링에 대한 만족감 표현마저 ‘수동적으로 안배를 받아들이는’ 증거로 왜곡하여, 그룹 전체에 대한 낙인화를 완성한다. 이는 도덕적 평가 전략 중 인격 폄하에 해당한다.

해설 과정에서 해설자는 ‘권력 구조’, ‘자주성’, ‘실권’, ‘마케팅 메커니즘’ 등 학술적으로 보이는 어휘를 대량 사용하여, 본래 주관적인 감정적 비판에 이론적 근거가 있는 듯한 외양을 씌운다. 영상 도입부에서 구축한 ‘여단학’ 프레임에 이어받아 IVE에 대한 비판을 ‘부학’이라는 유사 학술 체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인터넷상의 편파적 해석과 악의적 공격이 체계적인 연구 성과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를 통해 해설자는 자신의 주관적 선호를 객관적 분류 체계로 전환하는데 성공하고, 시청자는 무의식중에 IVE에 대한 부정적 규정을 받아들리게 된다.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 “자료는 이미 충분하다”를 반복하여 ‘결론은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논술 자체가 실증이 부족하고 논리가 편파적이며 전체가 편향되어 있다는 본질을 은폐한다.

클립6에서 해설자는 다른 그룹과의 대비를 통해 ‘실력 있는 그룹은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진짜 실력과는 스타일링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암묵적 가치관을 강화한다. 다른 그룹의 연습실 내 수수한 모습과 IVE의 무대 위 정교한 스타일링을 강렬하게 시각적으로 대비시켜, ‘수수함 = 실력, 정교함 = 허위’라는 도덕적 이항 대립을 구축한다.

이 대비를 통해 해설자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공고히 한다. 외모를 중시하고 스타일링에 공을 들이는 그룹은 ‘실력이 없어 마케팅에만 의존하는’ 그룹이며, 외모를 강조하지 않고 수수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룹이야말로 ‘진정으로 실력에 집중하는’ 그룹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설은 아이돌 산업의 시각적 특성, 무대 표현의 전문성, 그룹 스타일의 다양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도덕적 편향과 심미적 입장에 기반한 편파적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

이 클럽 전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학술적인 외양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제가 편향되어 있고, 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도덕적 이항 대립을 통해 IVE에 대한 전면적 폄하와 배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3) ‘여성 각성’ 서사로의 전환

IVE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을 마친 뒤, 해설자는 영상 마지막 1/3에서 성찰하는 듯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해설자는 실력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IVE와 같은 그룹에서 멤버들이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 스타일링에서의 균형만을 추구할 뿐, 창작 자율권은 요구하지 않고 센터가 가지는 노출 이익에만 연연한다고 주장한다. 이 발언은 일종의 정리 형식을 취하며 앞서 제기한 IVE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다. 자막에서는 ‘외모 중시’, ‘실권’, ‘상품화’, ‘타자화’ 등 핵심 표현이 반복적으로 굵게 표시되며 그룹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완성한다.

해설자는 비판의 범위를 확장하여 아이돌 그룹 내부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차원으로까지 확대한다. 해설자에 따르면, 한 그룹이 외모 경쟁에만 머물고 핵심 콘셉트가 자기 과시에만 집착한다면 팀 결속력을 갖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청자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힘들다. ‘긍정적 방향 제시’라는 표현은 아이돌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에 끌어들여, IVE에 대한 비판을 단순한 그룹 평가를 넘어 공공적 쟁점으로 포장한다. 또한 시청자들이 여자 아

이들의 행동을 높은 비율로 모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IVE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자 아이돌을 상품으로 여길 때, 우리 자신 또한 타자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반문을 통해 영상 전체를 여성의 생존 조건에 대한 사회적 성찰로 포장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교묘하게 도덕적 보호막을 형성한다. 영상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라도 ‘여성의 처지를 관심 갖지 않는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비판자가 도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해설자는 IVE에 대한 비판을 여성 해방 서사에 끼워 넣어 전체적인 비판에 정당성의 외피를 씌운다.

클립8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서사가 더욱 고양된다.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진정한 여왕이 되시길 바란다”는 한 마디는 8분에 가까운 유도적 비판을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언으로 둔갑시키고, 해설자 자신을 계몽적인 입장에 위치시킨다. 이는 반 리우웬이 제시한 ‘도덕적 서사’ 구조 그 자체이다. 실력을 증시하고 대상화를 거부하며 자율성을 지킨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을 얻고, IVE처럼 외모에 치우치고 실권을 상실한 그룹은 대상화된 반면교사로 자리매김된다.

영상은 “어쨌든 여러분에게, 저는 언제나 최선의 소망을 보내요”는 말로 마무리되며, 이 문구는 자막에서 굵게 강조되어 오랜 시간 이어진 유도적 공격이 ‘당신을 위하는’ 선의의 배려로 순화된다. 이로써 해설자는 사이버 폭력 가해자라는 인상을 완전히 벗어낸다. 뒤이은 “좋아요·공유·저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직접적인 호소는 시청자의 참여와 확산을 유도하며, 정당화된 형태로 포장된 부정적 담화가 플랫폼을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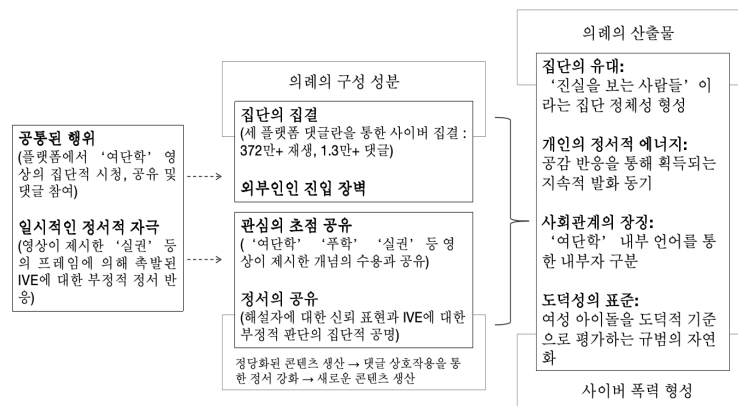
3) 유도형 사이버 폭력 담화 확산의 메커니즘

정당화된 담화가 사이버 폭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콘텐츠 생산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커뮤니티 차원의 집단적 확산과 동의가 수반되어

야 한다.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공간적 제약을 해체하여, 이용자들이 오프라인에서의 대면 접촉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이고 동시적인 상호작용을 실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강렬한 감정적 몰입과 집단적 반응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³³⁾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플랫폼의 댓글란, 공유 기능, 해시태그는 공동으로 온라인 상호작용 장(field)을 구성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네티즌들은 비리비리, 더우인, 샤오홍슈 세 플랫폼에서 ‘여단학’ 관련 영상을 집중적으로 시청하며, 이번 사이버 폭력의 기반을 형성하였고, 댓글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 참여 행위를 구축하였다. 영상에서 제시된 ‘실권’, ‘푸학’ 등의 해석 프레임은 시청자들의 IVE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촉발하여 즉시적 감정 자극을 구성하였다. 집단적 참여와 감정 자극의 중첩은 상호작용 의례 형성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림 1> IVE에 대한 유도형 사이버 폭력의 상호작용 의례



출처: 저자 작성

33) WUJUAN, 「新媒體景觀下受眾參與文化與身份認同轉換」,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6호, 2022, 355쪽.

세 플랫폼 관련 영상의 총 재생 수는 372만 회를 초과하였으며, 댓글 수는 1만 3천여 건에 달하였다.³⁴⁾ 댓글란은 기능적으로 콜린스가 제시한 ‘신체적 공존’을 대체하여 네티즌의 온라인 집결을 실현하였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영상 관점에 동의하는 댓글을 우선적으로 상단에 배치하고 이견은 주변화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이견을 배제하는 여론 장벽이 형성되었다. ‘여단학’ 등의 개념은 빠르게 커뮤니티 공유 담화로 자리 잡았으며, 댓글란에서 “진짜 웃기다, 이 해설자 정말 객관적이네, ‘푸학’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³⁵⁾와 같은 발언은 ‘푸학’을 기정사실로 직접 간주하며 집단적 공동 관심 초점을 형성하였다. 또한 “논리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이성적이다, 왜 이제야 추천됐지? 정말 잘 안다, 모든 말에 동의한다!”³⁶⁾와 같은 댓글은 영상 내용에 대한 긍정을 넘어 해설자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전달하며, 집단 내부의 감정적 공명 형성을 촉진하고, 나아가 콜린스가 제시한 ‘집합적 흥분’을 촉발하였다.

동시에, 일부 댓글은 영상의 유도 하에 네티즌의 인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예컨대 “네 말대로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보니 확실히 팀 전체(IVE)가 이상하게 느껴진다³⁷⁾”와 같은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네티즌들은 원래 IVE에 대해 모호하고 중립적이었던 인상이 해설 프레임의 영향 하에 점차 명확한 부정적 인지로 고착화되었으나, 여전히 이를 자신의

34) 2026년 3월 26일 기준, 해당 영상은 비리비리에서 조회수 372만 회, 좋아요 8,123회, 즐겨찾기 3,884회, 공유 172회, 댓글 481건을 기록하였고, 더우인에서 좋아요 7.7만 회, 댓글 1,522건, 즐겨찾기 4,535회, 공유 8,103회를 기록하였으며, 샤오홍수에서 좋아요 1,306회, 즐겨찾기 175회, 댓글 94건을 기록하였다. 세 플랫폼의 전과 데이터를 종합하면, 해당 영상은 수백만 규모의 수용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검색일자: 2026년 3월 26일)

35) 원문:“我要笑死了, 這個博主很中肯, 確實沒辦法否認芙學的存在。” 이 댓글은 해당 영상의 더우인 댓글란에서 발췌한 것이다. (검색일자: 2026년 3월26일)

36) 원문:“思路清晰, 客觀且理智, 爲什麼我現在才刷到你? 你實在是懂, 我認同你的每一個字!” 이 댓글은 해당 영상의 비리비리 댓글란에서 발췌한 것이다. (검색일자: 2026년 3월26일)

37) 원문:“好像你說的還真是, 這麼一看確實覺得整個團(ive)奇奇怪怪的。” 이 댓글은 해당 영상의 더우인 댓글란에서 발췌한 것이다. (검색일자: 2026년 3월26일)

독립적 판단의 결과로 오인하였으며, 댓글란의 집단적 동의는 이러한 착각을 더욱 심화시켰다.

상호작용 의례를 거치며 네티즌들은 “우리는 진실을 꿰뚫어 본 사람들“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좋아요’와 응답 속에서 감정적 에너지를 획득하여 지속적인 토론 참여의 동력으로 삼았다. ‘푸학’ 등의 전용 담화는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표지가 되었으며, 실력과 자율성으로 걸그룹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당한 규범으로 목인되었다. 이러한 유도적 담화는 일회적 시청의 열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파를 촉발하였다. 해설 관점에 동의하는 네티즌은 관련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공유하여 크로스 플랫폼으로 담화를 확산시켰으며, 유도형 사이버 폭력은 정당화 콘텐츠 생산 — 댓글란 감정 강화 — 신규 콘텐츠 재생산의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확대되어, 공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4. 결론

본고는 중국 한 블로거가 여러 플랫폼에 올린 케이팝 걸그룹 관계 분석 해설 영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담화 정당화 이론을 바탕으로 영상의 시청각 다중 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영상은 유도형 사이버 폭력의 전형적인 미디어 사례로 확인되었다. 영상 제작자는 시청각 소재를 결합하여 걸그룹에 대한 주관적 추측을 학술적 형태로 포장하고, 공격적 담화에 정당성 부여함으로써 잠재적 사이버 폭력이 ‘합리적 분석’으로 위장하여 확산되며 수용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설자는 ‘여단학’ 프레임을 통해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출연함으로써 권위를 형성하여 시청자를 자체적인 평가 기준으로 유도하였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IVE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노골적인 폭력에서 벗어나

‘증거 기반의 분석’으로 둔갑시켰다. 시청자는 플랫폼 내 상호작용을 통해 획일적인 부정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폭력 행위에 대한 도덕적 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 차원에서 유도형 사이버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는다.

유도형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폭력의 새로운 은폐 형태로, 형식 합리화, 수단 증거화, 효과 유도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직접적인 욕설을 사용하지 않고 ‘객관적 분석’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탐지와 저항이 매우 어렵다. 현재 중국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숏폼 플랫폼의 확산과 함께 이러한 방식이 마케팅 계정(营销号)³⁸⁾ 사이에서 논란 조성과 트래픽 확보를 위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계정들은 아이돌에 대한 업무적 평가를 넘어 인격과 동기에 대한 무근거한 추측을 확산시켜 이익을 추구하며 아이돌 집단에 심각한 불공정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IVE 멤버인 장원영은 이러한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방송에서도 반박했음에도³⁹⁾ 알고리즘에 의한 온라인 여론의 확산 속에서 개인의 항의는 체계적인 유도형 사이버 폭력을 막기 어렵다. 오히려 반박 내용이 왜곡되어 다시 사이버 폭력의 소재로 활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본고는 전형 사례에 대한 텍스트 복원과 심층 분석을 통해 유도형 사이버 폭력이 다중모달 전략을 통해 정당화를 실현하고 집단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밝혔다. 다만 연구 분량의 제약으로 인해 동일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현성적이든 은폐한 형태든 사이버 폭력의 피해 본질은 동일하다. 유도형 사이버 폭력은 ‘정당성’을 내세우지만 아이돌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트

38) 마케팅 계정이란 정보 전달이나 의견 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정이 아니라, 조회 수·노출도·광고 수익을 핵심 지향점으로 삼는 콘텐츠 생산 주체를 의미한다. 이들의 운영 논리는 기존 자료를 재가공하고, 여기에 자극적이거나 특정 방향성을 지닌 해석을 덧붙여 논쟁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龔璠璠, 앞의 논문, 2025, 참조.

39) 장원영은 2025년 1월 15일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럭〉 제276회에서 “타의에 의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네티즌들에게 생긴 오해로 인한 억울함과 힘들음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라우마를 남기며 극단적인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이 집단 정서를 확산시키는 상황에서 유도형 사이버 폭력의 위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유명인의 정신 건강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양호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인의 인격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고 개선해 가야 할 문제이다.

參考文獻

1. 단행본

- Collins, Randall, 진수미 역, 『사회적 삶의 에너지: 상호작용 의례의 사슬』, 한울, 2009.
- Morita Yashia, 『教室の危い』, 東京: 金子書房, 1996.
- van Leeuwen, Theo, *Discourse and Practice: New Tools for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_____, 『話語與實踐: 批判話語分析新方法』,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18.

2. 논문류

- Ging, D. and Siapera, E., "Special Issue on Online Misogyny", *Feminist Media Studies*, Vol.18, No.4, 2018.
- Owen, T., Noble, W., Speed, F. C., et al., "Virtual Violence: Cyberspace, Misogyny and Online Abuse", in Owen, T., Noble, W. and Speed, F. C. (eds.), *New Perspectives on Cybercrim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 van Leeuwen, Theo, "Legitimation in Discourse and Communication," *Discourse & Communication*, Vol. 1, No. 1, 2007.
- _____, "Representing Social Action," *Discourse & Society*, Vol. 6, No. 1, 1995.
- Zhai, Hui, and Wang, Wen Y., "Fans' Practice of Repor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7, 2023.
- 박해완·박성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육계 폭력 담론의 주요 속성 및 군집 구조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제64권 제5호, 2025.
- 방향옥, 「중국 사이버 폭력 언어의 특징과 표현 양상」, 『용봉인문논총』, 제58

- 호, 2021.
- 소병일, 「욕망과 폭력—국가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욕망의 담론구조에 관하여」, 『철학연구』, 제47호, 2013.
- 심진경, 「여성 폭력의 젠더정치학」, 『젠더와 문화』, 제4권 제2호, 2011.
- 조계원, 「디지털 혐오 시대의 사이버 폭력」, 『시민정치연구』, 제8호, 2024.
- 조동매, 「최근 중국의 ‘사회적 사망’ 현상에 관한 분석—霍尊 사건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62호, 2022.
- 조태린, 「젠더 (폭력)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화 연구—방법론적 검토와 시론적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82호, 2019.
- WUJUAN, 「新媒體景觀下受眾參與文化與身份認同轉換」,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6호, 2022.
- 劉勤, 「“饭圈”青年的思想行为特征与教育引导策略研究」, 西南科技大学 석사학위 논문, 2024.
- 曹葉, 「“饭圈”网络暴力行为的产生机制与治理对策」, 『西南科技大学学报』, 第41권 제6호, 2024.
- 朱永生, 「多模態話語分析的理論基礎與研究方法」, 『外語學刊』, 제5호, 2007.
- 林丹·黃嘉欣, 「傳播學視角下網絡暴力現象研究」, 『新聞研究導刊』, 第13권 제22호, 2022.
- 秦健, 「人工智能與人：從AI的正面與負面影響說開去」, 『數據分析與知識發現』, 第8권 제Z1호, 2024.
- 謝磊, 「社交媒體情境下明星遭遇網絡暴力成因分析」, 『傳播與版權』, 제6호, 2018.
- 陳愛梅·張璐璐·舒樂, 「戲謔、抵抗與反思：青年“X學”迷因的符號互動與身份建構研究」, 『中國青年研究』, 제3호, 2026.
- 龔瑤瑤, 「网络暴力语境下‘营销号行为’的界定」, 『中国价格监管与反垄断』, 제10호, 2025.

3. 기타자료

中國網, 「從明星之死看網絡暴力, 各國都如何打擊」, 中國網, http://www.china.org.cn/chinese/2016-09/21/content_39343384.htm, (검색일자: 2026년 3월 25일).

한국일보, 「설리·구하라→김새론까지…악플·악성 보도에 멍드는 스타들…비극의 고리 끊으려면」,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813180003551>, (검색일자: 2026년 3월 25일).

Abstract

A Study on Discursive Legitimation Strategies of Guided Cyber Violence — Focusing on Chinese Online Videos Related to K-pop Girl Groups

Huang Shuyi · Park, Tchi Wan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course of ‘Yeodanhak(女團學)’, a recently prevalent phenomenon within Chinese Hallyu fandom, and analyzes commentary-style video content targeting the K-pop girl group IVE to investigate the discursive legitimation strategies of guided cyber violence and its mechanisms of diffusion. Guided cyber violence refers to a discursive practice that, under the guise of “objective analysis,” directs audience judgment through discourse strategies to legitimize attacks against specific targets. Employing discursive legitimation theory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codes and analyzes four legitimation strategies manifested in the video content: authorization, moral evaluation, rationalization, and mythopoesis. The analysis reveals that commentators deploy comparative editing, statistical data, and an expert-like tone to lend an appearance of objectivity to subjective attacks, layering legitimation strategies across four thematic domains: appearance, competence, ambition, and morality. Furthermore, drawing on interaction ritual chains theory, this study demonstrates how legitimized discourse generates collective effervescence through shared emotion in comment sections, forming a self-reinforcing chain of diffusion.

Key words : Guided Cyber Violence, Discursive Legitimation, Interaction Ritual Chains, K-pop girl groups, IVE

투 고 일 : 2026. 4. 10. / 심 사 일 : 2026. 4. 15. ~ 2026. 5. 15. / 게재확정일 : 2026. 5. 20.

